



Pastoral Letter

The Rt. Rev. Carlye J. Hughes, XI Bishop of Newark

To be read in all congregations of the diocese, or otherwise made available to all members by email or other distribution.

2022년 5월 25일

여정의 동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할 일은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립초등학교 아이들과 교사들의 죽음에 대한 우리의 공포, 분노, 슬픔을 당신의 지혜와 권능의 나침반에 모아서, 밤 동안 우리가 옳은 일을 찾아 행하게 하시고, 아침이 오면 주님의 죄 사함 정의와 새로운 삶에 의지하게 하소서. 아멘.

(풍성한 예배 2[Enriching Our Worship 2], p. 143의 내용 각색)

이번에 텍사스주 유발데에서 발생한 또 한번의 학교 총격사건 뉴스가 우리 모두에게 충격과 낙담, 분노를 안겼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와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겪는 참담한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매일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실천해야 합니다.

19명의 어린 몸과 두 분의 교사들은 우리에게 생명에 대한 헌신과 관심을 요구합니다. 빈번한 총격 사건을 종식시키기 위해 우리가 개인과 교회 차원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죽은 자들에게는 우리의 좌절감을 생각할 시간이 없고, 압도적 감정을 인내하지 않으며, 우리의 의견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들의 삶의 메아리와 죽음의 공포는 우리에게 총기 폭력과 대량 살상을 종식시키도록 철저한 노력을 촉구합니다.

그 학생들과 교사들은 급우, 부모, 가족 및 친구와 함께 저녁 식사, 놀이, 숙제를 하고 옛날이야기를 듣기 위해 집에 가기를 기대했습니다. 통제 없는 총기 판매와 무자비한 살인 욕망을 가진 또 한 사람에게 의해 모든 것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생명권이 있습니다. 뉴욕주 버팔로의 식료품 쇼핑객, 캘리포니아주 라구나 우즈의 교회 신자,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콜럼바인 및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의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립초등학교 총격 사건은 뉴타운의 샌디후크초등학교에서 20명의 어린이와 6명의 성인이 살해된 지 10년 후에 발생했습니다. 버팔로에서 식료품 쇼핑객 10명이 살해된 후 10일 만에 발생한 일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하도록 촉구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고 발생을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변화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시작하는 몇 가지 방안을 말하겠습니다.

해당 의회 대표에게 전화하고 편지를 쓰십시오. 우리가 뉴저지 출신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그들의 목소리와 존재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모든 사람의 생명 보호를 위해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합니다.

주 입법부 대표에게 전화하고 편지를 쓰십시오. 대규모 총기 폭력을 종식시키려면 주 정부와 연방 정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 대표들이 알아야 합니다.

소속 본당이나 지역에서 평화펠로우십(Episcopal Peace Fellowship) 챗터를 시작하십시오. 해당 교구와 지역이 성공회 전체의 노력에 부합하는 실천 방법을 배우고 공유하십시오.

개인 기도와 함께 하는 기도에 맞게 기도 내용을 조정하십시오. 총기 폭력에 맞서는 주교들 (bishopsagainstgunviolence.org) 및 *풍성한 예배 2(Enriching Our Worship 2)*는 좋은 예배 및 기도 자료입니다.

개인 및 교구 기도 목록에 사망자의 이름을 추가하십시오. 매일의 기도와 주일예배에서 그들의 이름을 거명하며 기도하십시오.

전국 총기 폭력 예방의 날인 6월 3일에 주황색 옷을 입으세요(wearorange.org). 6월 3일에 전국적으로 주말 활동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지자체는 주말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당신이 속한 교구는 어떻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번 주일과 6월 3일에 교회에 오렌지색 옷을 입는 것처럼 간단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모두와 교구가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역 출판계 및 지역 지도자들에게 기사와 편지를 써서 보내십시오. 변화를 일으키려면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열정적으로 끈질기게 노력해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총기 폭력에 대한 우리의 충실한 대응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속하는 일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슬퍼하고 기도하고 소매를 걷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의 대가는 너무 크며 더 많은 죽음을 초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모든 무고한 희생자들을 자비의 팔로 받아주시고, 당신의 큰 권능으로 이 세상에 악을 행하려는 자들은 좌절시키고 정의, 사랑과 평화에 의한 통치를 확립해주시기를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무고한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 공동 기도서, p. 238의 내용을 각색)

은총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주교 *Carlye J. Hughes*
XI Bishop of Newark